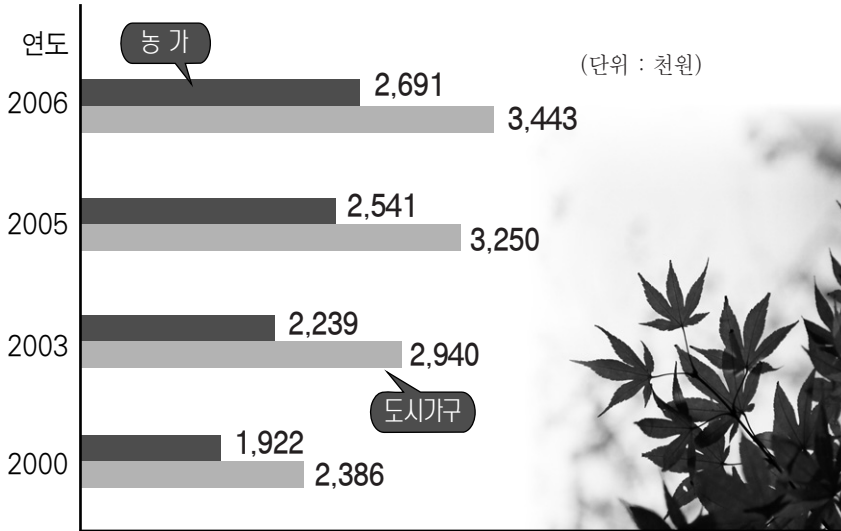


농가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



숨은그림찾기 정답 ⑦



편집후기

丁亥年の 끝이라 말하기엔 이르지만, 끝임은 사실이다. 매년 한 호(號)를 접기 위해 무형의 것에 쫓기다보면 끝자락은 탄지경(彈指頃)에 이르는 느낌이다. 그럼에도 작금의 일상을 돌이켜 보면 '일각 여삼추' 이며 무료를 이겨내기가 적잖이 버겁다. 가끔은 두터운 빙하에 갇혀있는 듯 암영이 드리우지만 끝이 요원하지 않기에 경탄하지도 않는다. 그래서 戊子年の 정초가 더욱 그리워진다. 독자여러분의 평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.

독자의 글을 받습니다.



- ▶ 이 책자는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. 받으신 분은 서로 돌려 읽으시어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애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담이나 지도수기, 산문, 콩트 등 투고를 환영합니다. 투고한 원고 중 뽑힌 글은 본지에 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. 원고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원고는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.